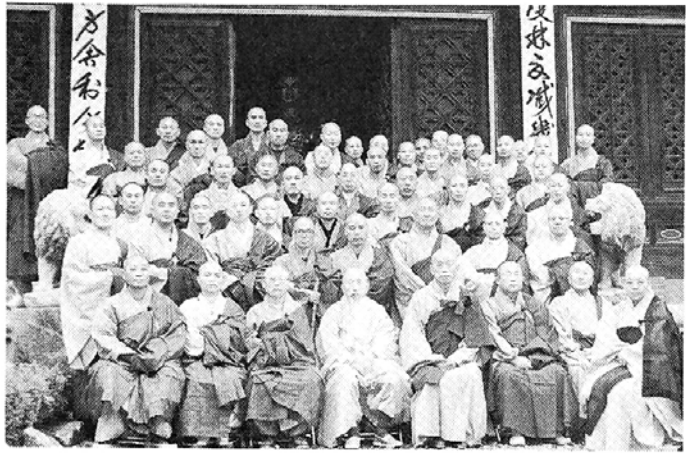


크스님 수행한담

오히려 마음 편해져요



◇올해(96년) 하안거 결제 법요식을 마치고 월정사 대웅전에서 50여 수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인허스님(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을 할 뿐입니다. 탄 것은 탄대로 삶아 먹은 것은 삶은 대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하면 수좌들끼리 간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심이 생길 수 있어 수행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찾고자 한다면 말없는 것, 생각이 끊어진 곳에 가야 합니다. 사회사람들은 말을 안하면 죄가 되지만 부처님 법에선 각자각자가 묵언속에 마음을 다스려 가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옛 선사들도 이웃과 관계를 끊고 제 자신의 시간 속에서 출가본분을 되새기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값진 법문이란 것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시간 않으면 한시간 부처, 열시간 앉아 있으면 열시간 부처'라는 법문이 자극제가 되었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는 내성을 기르는데 참선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3년이 지난 무렵부터는 허리를 곧게 세워 피고 당당한 모습으로 구참수좌들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등을 굽히고 가슴을 조이며 이리저리 천황지축 날뛰는 모습은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고행이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자신의 본

“부처님을 바로 알고 철저히 믿으세요  
나와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과 나는 무차별의 일체입니다”

저는 그래도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선방을 찾지 않고도 참선수행할 기회와 장소가 쉽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큰 선지식이신 한암스님 문하에서 지도를 받으니까 그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6년여동안 오대산 상원사에서 화두를 들며 선방에 묻어 있다가 여기저기 만행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중 잊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산 대입원에서 탄허스님이 (화엄경)을 출간할 때 원만한 담교를 위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행위를 경험한다는 것은 신선하지만 기도수행은 나에게 특별했습니다. 즉 처음 터럭만큼의 차이가 나중에는 천지간의 차이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망경》보살계본에 보면 '수행의 기쁨은 기도를 통해 닦고, 지극한 정성으로 마음을 밝히며 지혜의 달빛을 가득히 하는 것이 삼학(戒, 定, 慧)이라면 그 근본은 기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나 참선이나 큰 수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 기도를 잘못하면 백일이 지나도 천일이 지나도 다 허망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또한 기도후에도 '과연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진의 뜻을 흘렸는가' 하는 참회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기도와 정진, 참회야말로 수행의 삼박자라 할 수 있습니다. 모를지기 수행자는 부처님과 나의 만남에 감사하고 기도, 정진, 참회하는 가운데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른 수행인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채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 신심도 안생기고 수행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포교활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누구십니까. 시방제불의 근원이고, 만유의 근원인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이 부처님이십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오고 감과 생멸을 모두 떠나 우주에 영원히 상주하는 본입니다. 법신(法身)으로 우주에 영원히 계시고 화신(化身)으로 은누리에 총만하신 본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법 그 자체이며 모든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또한 중생의 고난을 구제해 주는 자비 원력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석 예불시 우주를 이끄시는 분으로 삼계도사를 숭배하며, 생명의 근원으로 사생자부라고 찬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부처님이 '나'라고 하는 중생과 본질에 있어서 하나, 한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나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생명의 본질이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과 나는 평등 무차별의 일체임을 알 때 우리는 생명의 고요에 귀환케 될 것이며 생사고해에서 해탈케 될 것입니다.

자신을 끊어 놓는 번뇌의 사슬을 끊고 나설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고자 출가한 스님들은 가리켜 구름 흘러가듯 홀로 흐르듯 간다고 해서 운수남자라고 했습니다. 세속에 사는 여러 분은 고해의 깊고 넓은 바다에서 벗어날 때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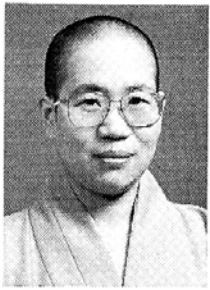
정리=김종근 기자

4와 경전



30

열반경



게환스님  
통국대 교수·불교학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는 물론 그토록 원하던 명예와 권세, 그리고 재산과 소유물 일체를 놓아두고 그것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채 철저히 혼자서 가버린다는 길은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절대적명의 명제를 놓고 모든 종교가 생겨났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종교와 죽음의 관계는 절박하고도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또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라는 물음에 부처님께서 “법을 등불로 삼고(法燈明) 자신을 의지하여(自燈明) 밝게 비추며 살아라”고 하신 것이다. 말하자면 한 인간으로서의 석가모니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인간 석가모니에게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대승열반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불신상주설(佛身常住說)이다. 부처님의 법신은 항상 계시다는 가르침인데, 부처님의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부처님의 육신은 열반에 들었지만 깨달음으로서의 법신은 영원하여 항상 우리의 함께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둘째는 열반반경(涅槃四德)인 상락아정(常樂我淨)

삶과 죽음 무상함 일깨우는 가르침  
삼독 끊어 도달하는 이상세계 제시

바로 삶과 죽음의 무상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삶과 밀접한 경전이기에 때문이다.

《열반경》에는 《소승열반경》과 《대승열반경》이 있다. 먼저 전자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까지의 살아오신 생애와 열반 이후 사리분해에 이르기까지 저간의 사정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반면에 후자의 내용은 부처님의 법신은 영원하다는 것과 열반하는 네 가지 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교리적인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사실 우리 중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부처님의 열반일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열반이야말로 위대한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일지라도 영원히 이 세상에 상주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의 육신소멸로써 여실히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고 하는 불교의 진리를 사실 그대로 입증하시고 동시에 부처라는 깨달음의 경지를 결코 신격화하지 않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를 보다 감격스럽게 하는 것은 당신의 열반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다. 즉 제자들이

의 가르침이다. 즉 열반은 항상하고, 즐거우며, 열반의 주체는 나이고, 진실로 청정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무상한 것을 항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삶 그 자체가 고통임을 모르고 순간적인 쾌락을 즐거움으로 여긴다. 또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는 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더러운 내 육신을 깨끗한 것으로 집착하는 전도(顛倒)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일깨워 준다. 셋째로는 모든 중생들은 한결같이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悉有佛性)는 가르침이다. 이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주고 있다. 즉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습으로 보면 중생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부처라는 뜻이다. 따라서 《열반경》은 우리의 현실생활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번뇌, 즉 불꽃같이 치성하는 삼독(三毒)을 끊음으로써 최후에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 그것이 바로 열반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같이 《열반경》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고찰과 영원을 지향하는 중생들의 간절한 물음에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인생관을 확립시켜 주고 있는 경전이라고 하겠다.

기도-정진-참회 불자의 세가지 의무

“잡념 끊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수행”

실할 때 묵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생활의 타성에 젖다보면 수행의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흐릿한 머릿속에 한줄기 맑은 샘물이 흘러들었을 때, 아침에 드트듯이 무언가 확연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일상생활을 과감히 청산하고 묵언정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좌불와(長坐不臥)하는 스님들, 오후불식(午後不食)하는 수좌들이 늘어나고 선방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 입방할 때는 행자시절 어떤 스님에게 들은 달마대사의 '면벽9년'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 아찔한 생각이 들더니 시간이 갈수록 요령이 생겨 그 뜻에 조금씩 젖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앉아

래 모습을 살펴 찾는데 게을리 해서 안됩니다. 정진의 힘을 길러두어야 눈이 감길 때 정념(正念)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온갖 잡념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수행입니다.

“부처님 법은 어려워져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본분을 깨달은 사람이 말을 하면 다 법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고 입으로만 지껄이면 마가 될 뿐이다”라는 한암스님의 법문을 지금도 되새기고 있습니다. 결국 함부로 입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보일 때 가섭존자가 미소를 짓는 도리를 누가 알겠습니까.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수행을 게을리 하면 억만겁을 지나도 절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화엄경》보현행원품에도 '모든 것을 기도으로써 시작하고, 기도으로써 수행하며, 기도으로써 성불하라. 한순간도 기도의 일념을 쉬지말라'고 했습니다.

이같은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한순간도 헛됨이 없는 수행을 하려고 하루에 3시간씩 4번 그러니까 사분정근을 3년간 지성으로 했습니다. 주로 열반이외에 말은 전혀 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참선공부나 염불기도나 일심(一心) 일념(一念)이 돼야 합니다. 기도에 들어가면 3시간을 서 있어야 하는데 온몸이 저러고 일념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보면 열반하다가도 졸음이 옵니다.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다리가 아프고 저려오는 것은 참을 수가 있어서 수미를 끊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자,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목갈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 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 합본집('96년판) : 제60호(1996. 1. 3)-제 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불 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형준비에 지친 수행자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삼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원전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린증,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약성병,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절장애,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결핵, 신전대사 촉진, 비위약, 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지능력이 높은 강력한 재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부패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불행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옵고 山蔘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精進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오니 부당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삼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회회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약용식물은 본부에는 上蔘 120가지 中蔘120가지 下蔘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蔘중의 첫째가는 蔘蔘 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도 모두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산삼으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